타이거즈 대기록에 도전하는 KIA 양현종

136승 양현종…'선동열 146승' 깬다

〈타이거즈 순수 최다승〉

작년까지 6년 연속 두자릿수 승리
통산 150승 땐 역대 네 번째 기록
해외진출 도전 선언…큰 동기부여

'국보를 넘어라!' KIA 좌완투수 양현종이 다가오는 정규시즌에 타이거즈 대기록에 도전한다. 선동열 전 감독이 현역 시절 세운 '순수' 타이거즈 146승의 금자탑을 넘본다. 양현종은 올해 11승을 추가하면 이 기록을 넘어선다. 스포츠동아DB

타이거즈 전설의 대기록을 넘어설 수 있을까. 2020시즌 KBO리그는 5월 5일 개막한다. 팀당 144경기 체제가 유지돼 선수들은 이전보다 빠듯한 일정을 소화할 처지다. 피로도는 높지만 경기 수적인 면에서 동일한 조건은 계속된다. 숫자의 스포츠인 야구인지라 '기록'이 중요한데, 그 연속성이 종전과 똑같이 유지되는 것이다.

대기록을 눈앞에 둔 선수들은 많다. 타점, 홈런, 이닝, 삼진 등 야구의 세부적인 지표는 일일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올해 유독 의미 있는 대기록에 도전하는 선수가 있다. 개인과 팀 모두에 귀중한 기록을 남길 선수는 KIA 타이거즈 양현종(32)이다.

양현종은 올해 타이거즈 순수 최다승 투수에 도전한다. 2007년 데뷔한 그는 2019년까지 13시즌 동안 136승(85패)을 마크했다. 프리에이전트(FA) 계약도 KIA와 체결하면서 오직 '원클럽맨'으로 100승 넘게 금자탑을 쌓았다.

양현종 이전에 타이거즈에서만 100승을 넘게 기록한 투수는 선동열 전 국가대표팀 감독이다. 선 감독은 현역이었던 해태 타이거즈 시절 11시즌(1985~1995년) 동안 무려 146승(40패)을 기록했다. 이 역시 오로지 타이거즈에서만 올린 승리다. 이강철 현 KT 위즈 감독이 152승을 마크했지만, 2000년 삼성 라이온즈 소속으로 기록한 4승이 포함돼 있다. 타이거즈 소속으로만 승리 경쟁을 펼치고 있는 것은 양현종과 선 전 감독뿐이다.

양현종이 올해 11승을 올리면 147승으로 선 전 감독의 대기록을 넘어서게 된다. 여기에 3승을 추가하면 150승 고지까지도 밟는다. 송진우(210승), 정민철(161승), 이강철(152승)에 이어 KBO리그에서 4번째로 150승을 올리게 된다.

양현종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연속 두 자릿수 승리를 기록했다. 144경기 체제가 유지되는 올해에도 부상이 없다면 10승을 무난하게 거둘 전망이다. 선 전 감독의 대기록에 대한 동기부여도 확실하기 때문에 그에게는 힘을 낼 이유가 더욱 확실하다.

올해를 끝으로 두 번째 FA를 맞이하는 양현종은 이미 해외진출 도전을 선언한 상태다. 타이거즈에서의 마지막 해가 될 수도 있는 2020시즌. 역사에 남을 대기록을 남기고 타이거즈의 전설로 일찌감치 올라설 수 있을까. 그의 왼 어깨에 유독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장은상 기자 award@donga.com

뿔난 MLB 선수노조 "협상은 이미 끝났다"

경기수 비례 연봉 삭감 결정에 반발

미국 메이저리그(MLB) 사무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2020시즌 '셧다운'까지 염두에 두고 여러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선수들의 연봉을 경기수에 비례해 줄이기로 합의한 가운데 추가적인 연봉삭감안까지 검토 중이다. 선수노조(MLBPA)는 "협상은 이미 끝난 얘기"라며 선을 그었다.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MLB 노사는 3월 큰 틀에서 2020시즌 급여문제에 합의했다. 총액 1억7000만 달러(약 2099억 원)의 거액을 40인 로스터의 선수에게 일괄 지급하고, 급여는 경기수에 비례해 산정한다. 가령 시즌 절반인 81경기만 소화할 경우 연봉의 절반만 수령하는 체계다. 하지만 무관중으로 시즌을 치를 경우 구단의 추가적인 수익감소가 불가피하다. 티켓 및 상품 판매부터 식음료 판매까지 얽히고설킨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다. 이 때문에 구단들은 추가적인 연봉삭감을 논의하고 있다. 최근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뉴욕 메츠 COO(최고운영책임자)를 인용해 그 가능성을 언급했다.

선수노조에선 즉각적으로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토니 클라크 선수노조 위원장은 21일(한국시간) AP통신과 인터뷰에서 "연봉협상 얘기는 이미 끝났다"고 강조했다. 노조 임원 중 한 명인 앤드루 밀러(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역시 "2020시즌 급여는 합의가 끝난 문제"라며 "애리조나와 플로리다에서 격리해 시즌을 치르는 방법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먼 얘기"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마이크 트라웃(LA 에인절스), 클레이튼 커쇼(LA 다저스) 등 간판스타들이 격리 개막에 격렬히 반대한 만큼 당장의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럼에도 급여문제는 발등에 불일이 분명하다. 롭 맨프레드 커미셔너는 감독, 코치, 프런트 등 '비경기 인력'에 한해 급여 삭감을 허용했다. 데릭 지터 마이애미 최고경영자(CEO)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기 전까지 연봉을 안 받겠다"고 선언했다. 일부 고위층의 전향적 태도에도 전체 구성원의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어려운 분위기다. MLB 노사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다함께 '집콕 응원'" SK 응원단이 21일 인천SK행복드림구장에서 열린 키움과의 연습경기에서 전광판을 통해 실시간으로 영상 응원을 하고 있다. 이날 경기는 코로나19 여파로 무관중 경기로 치러졌다. 인천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한국을 보라"…KBO리그 코로나 대처에 주목하는 외신들

178일 만에 한국에서 열린 팀간 맞대결에 미국 메이저리그(MLB)의 관심이 지대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개막시점을 논의하기조차 어려운 MLB로선 KBO리그가 부러울 따름이다.

21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두산과 LG의 연습경기를 앞두고 한 해외매체가 그라운드를 촬영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 속에 KBO리그의 개막은 외신이 주목하는 이슈다. 잠실 | 주현희 기자 teth1147@donga.com

뉴욕포스트는 21일(한국시간) 'MLB에 희망을 제시하는 한국야구 재개 풍경'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매체는 "MLB와 일본프로야구(NPB)에 이어 세계 3위 프로리그인 KBO리그가 21일부터 시작되는 팀간 연습경기로 정규시즌 시작에 큰 발걸음을 내딛는다"고 보도했다. 관중이 없고 심판이 마스크를 착용하며 경기장에서 침을 뱉는 게 어렵지만 야구를 한다는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뉴욕 포스트는 LG 트윈스 투수 케이시 켈리와 롯데 자이언츠 행크 콩거 배터리코치의 인터뷰를 소개했다. 켈리는 "지금까지 훈련을 했다는 자체가 신난다. 곧 시즌이 시작되니 정말 흥미진진하다"고 밝혔다. 콩거 코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교적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한국 풍경을 소개했다.

한국의 시스템은 MLB에 표준이 될 수 있다. 특히 애리조나와 플로리다의 스프링캠프지를 중심으로 격리된 단축시즌을 치르자는 이른바 '애리조나 플랜'에 KBO리그는 좋은 모델이다. 매체는 "한국에서 가장 긴 이동거리는 서울과 부산(약 400km)이다. 이들은 비행기가 아닌 기차로 이동한다"며 "애리조나 플랜에서 최장 이동시간은 60~90분"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미국과 한국의 사정을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한국은 21일 0시 기준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9명에 그쳤다. 어느 정도 안정세에 접어들었기에 정부에서도 무관중 개막을 허용했다. 반면 미국은 현지시간으로 20일까지 사망자만 4만931명에 달한다. 한국 상황(사망자 237명)보다 몇 배는 더 위험하다. 그럼에도 뉴욕 포스트는 KBO리그가 클럽하우스의 방역을 유지하는 시스템에 주목하며 마스크 착용 및 열감지 카메라 설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철저한 방역 시스템을 구축한 뒤 정부와 긴밀한 협조로 개막을 준비해온 KBO리그는 해외에서도 조미의 관심사다. 해외 취재진은 21일부터 시작된 팀간 연습경기를 취재하기 위해 국내 구단들에 적극적으로 문의하고 있다. 단지 흥밋거리 수준이 아니라 적절한 참고사례를 배우기 위한 태도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표준을 제시한 KBO리그가 세계야구에 또 하나의 모델이 됐다.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최고 구속〉

최채흥 벌써 143km 삼성 선발의 축 될까

청백전 4경기서 ERA 1.20 맹활약
지난해 포심 평균 138.8km 웃돌아

최채흥

삼성 라이온즈 최채흥(25)은 일본 오키나와 스프링캠프에서 귀국한 뒤 진행된 자체 청백전에서 연일 안정적인 투구를 뽐내며 강한 인상을 남겼다. 국내 선발진의 무게감이 다소 떨어진다고 평가받는 삼성 입장에선 엄청난 수확이다. 허삼영 삼성 감독도 "투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어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최채흥은 데뷔 첫해인 2018시즌 8경기 4승1패, 평균자책점 3.21을 기록하며 가능성을 보여줬고, 2019시즌에는 선발과 불펜을 오가며 28경기에서 6승6패2홀드, 평균자책점 4.81의 성적을 남겼다. 시즌을 거듭할수록 1군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경쟁력만큼은 확실히 보여줬다. 3년차인 2020시즌의 과제는 확실하다. 삼성 마운드의 확실한 '믿을 맨'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팀 사정에 따라 선발과 구원을 오가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하나의 보직에 집중해 준비할 수 있다는 점이 호재다.

최근 흐름이 매우 좋다. 자체 청백전 4경기에 등판해 15이닝 2실점(평균자책점 1.20)을 기록했고, 삼진 13개를 솎아내는 동안 볼넷 4개만을 허용한 안정감도 돋보였다. 특히 팀간 연습경기를 앞두고 마지막 등판이었던 18일 청백전에선 포심패스트볼(포심) 최고 구속이 143km까지 나와 더욱 기대를 키웠다. 2019시즌의 포심 평균 구속(138.8km)을 웃도는 수치다.

그뿐 아니라 체인지업과 커브, 슬라이더 등의 변화구도 안정적으로 구사하며 선발 로테이션에 안착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줬다. 몸쪽 코스 공략에도 한층 자신감이 붙으면서 더 효율적인 투구가 가능해졌다는 분석이다.

최채흥은 "올해는 선발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며 "구속보다는 원하는 곳에 투구할 수 있도록 제구력을 향상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체력보완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끝까지 선발로테이션을 완주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